

초등특수교육과 07학번

김예슬 졸업생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원

Q1. 현재 어떤 성과를 이루셨나요?

처음 발령받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건강장애학생 지원 업무를 맡으며 업무 매뉴얼 집필에도 참여했고, 이후 특수학급 담임으로 근무하면서 교실 환경 개선, 통합교육 실천, 벽화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을 했습니다. 통합교육동아리 운영은 언론 보도가 되었고, 지역사회와 학교 간 긍정적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Q2. 특수교사의 길을 확신한 계기가 있나요?

학과 커리큘럼이 현장 중심이다 보니 현직 특수교사 멘토와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졌고, 그들의 실천적 태도에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지도를 받고 특수교육의 의미를 점차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어느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Q3. 예비 특수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교육 실습, 장애학생 캠프,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에 꾸준히 참여하며 실천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9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초·중등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동시 합격했고, 중등 부문에서는 수석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4. 대학원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전O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시각장애 및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중심으로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실천적 교육 경험을 이론화하고, 이를 현장 중심 정책으로 연결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5. 모교를 위한 활동을 지속 중이라 들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본교 동문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장학금 기탁, 학과 행사 지원, 재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학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친동생과 사촌동생도 본교 특수교육과에 진학시켜 특수교사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고, 현재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입니다.

Q6.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 길이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며 시작했습니다. 전혀 다른 꿈을 꾸던 재수생이었고, 특수교사가 뭔지도 모른 채 입학했지만 지금은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회의감이나 불안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반드시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 길의 끝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귀한 아이들과 그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